

'사회주부'가 땀다

3

자원봉사·상담원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주부 한정숙(47)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에 집을 나선다. 9월초부터 시작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안내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지난 뒤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하는 한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응

90년 10월부터 남편의 아내 구타 등의 성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인 '여성의 전화'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상담활동을 하는 정태림(37·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남편의 권유로 상담활동을 시작했다. 13살, 11살난 두아이의 엄마인 정씨는 "지난해 9월 상담원교육을 받고 활

매일 신길6동에 있는 탁아소 '꿈나무 어린이집'에 나가 아이들을 돌보는 열성 자원봉사자이다. 고2, 중3인 두딸이 아침 6시30분에 학교에 가기 때문에 "저녁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육아경험을 살려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주기도 하며 함께 놀아준다.

매일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빨래 청소 반찬만들기 등 집안일은 새벽이나 저녁때 한다는 최씨는 "바쁘지만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남편은 돈내고 하는 에어로빅 등으로 건강을 찾으려 다니지만, 자신은 하루 8천원 교통비를 받으며 좋아하는 일도 하고 정

'어머니 손길'로 사회그늘 밝힌다

병원·탁아소·상담실등 외로운 이웃 돌봐 사회밀거름 뿌듯...중년 자아상실감 극복도

급실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글을 못쓰는 환자대신 접수서류를 써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거들기, 보호자 안내 등을 한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한씨 등 주부 자원봉사자 6명이 요일별로 안내봉사를 하고 있다.

"무보수 자원봉사이지만 제가 하는 '작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할 때 보람을 느껴요."

따로 직장에 나가지 않고도 '뭔가 의미있는 일'을 찾는 주부들이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주부들의 이런 욕구에 맞춰 자원봉사자,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여성단체들이 많아지고, 이런 교육 수강생의 80~90%가 30, 40대 주부일 정도로 주부들의 사회활동 욕구는 아주 높다.

자원봉사, 상담원 활동은 1주일에 하루, 그것도 반나절 정도만 들어 무의탁 노인, 탁아소 어린이, 응급환자 등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들에게 '좋은 일'로 다가서고 있다. 그다지 드러나지 않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이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둔 행동하는 주부인 셈이다.



수요일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노인환자를 돌보고 있는 한정숙(가운데)씨. 그는 "남을 돕는 게 즐거워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임완호 기자〉

동을 시작한 뒤로는 결혼 10년째부터 썩트던 '나는 누구인가' 등의 의문이 가셨다"고 털어놓았다.

비록 주1회의 상담활동이지만 정씨에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변화된 사회'와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무슨 일이나 소극적이던 정씨를 '강한 여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주부 최신자(45·서울 동작구 동작동 106)씨는 올 4월부터

신진강에도 보탬이 돼 "1석2조 아니냐"고 활짝 웃는다.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장하고, 남편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성공할 때쯤 슬며시 찾아오는 '주부의 자아상실감'을 자원봉사, 상담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이들 주부의 삶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일궈내는' 탄탄한 밑거름이다.

〈신연숙 기자〉